

프로그린테크 - 군산시 250억 투자 유치 협약

군산국가2산단 2만평 부지 250억 투자 · 56명 고용 창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대내외적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 속에 단비처럼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군산시와 전북도, (주)프로그린테크(대표이사 김대영)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는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24일 시청 면담실에서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주)프로그린테크 김대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프로그린테크는 군산국가2산단 2만평 부지에 250억 원을 투자해 56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며 시와 전북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 착공하는 신축 군산공장은 2019년에 완공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지난 24일 시청 면담실에서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주)프로그린테크 김대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기대된다. 또한 군산시는 지난 4월 산업위기에 응별지역으로 지정돼, 군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보조금과 관련해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비를 일반지역보다 20% 정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유입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복 부시장은 "군산시와 전북도는 (주)프로그린테크의 상생의 파트너로서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며 "참신한 기업들의 군산지역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져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에 투자를 결정한 (주)프로그린테크는 지난 2010년도에 설립돼 의약품원료, 화장품원료, 기타정밀화학, 수처리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높은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유지 등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상태 유지 태풍 피해 최소화

한반도를 지나간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밤새 초비상상태를 유지했던 군산시가 극미한 피해상황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 24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건물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8건의 피해사항만이 접수되는 등 우려했던 큰 인명·재산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강임준 시장을 중심으로 밤새 비상체제를 가동해 재해취약지구 및 급경사지, 해안가 등의 재해취약지역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비응향과 외항 등 군산항을 비롯한 도서지역 어항의 어선 총 1,755척에 대한 피항 조치를 완료하고 강풍에 취약한 소형어선 500여 척을 육상으로 인양조치 하는 등 어선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했다.

군산시는 태풍 '솔릭'의 간접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에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재해 취약지역과 해안가·저지대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밤새 재난대책본부에서 노심조사했으나 피해가 많지 않아 다행스럽다"며 "조금의 피해 사항이라도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보건소,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보에 주력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9월 3일 군산사랑상품권 유통을 앞두고 상품권 홍보 및 가맹점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전형태 보건소장은 의약단체 4개 기관(군산의사사회, 군산치과의사사회, 군산약사사회, 군산간경사회) 회장을 직접 방문해, 군산사랑상품권이 원활히 유통되고 시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의약단체 회원들

이 가맹점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군산의사사회, 치과의사사회, 약사회, 간경사회는 지역화해 시행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군산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단체 회원들에게 가맹점 신청을 적극 독려했다"고 약속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 독려 및 홍보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군산경제를 정상궤도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기자

원광대, '익산학'을 정규 교과로 편성, 호응도 높아

시민들도 참여 가능한 공개강좌 형식으로 진행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소장 임승배)가 2018년 가을학기부터 익산학을 정규 교과로 편성해 강좌를 시작해 관심을 끈다.

교과명은 '익산, 도시와 사람'으로 1차 수강인원만 총 100여명에 이르러 예산외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익산학연구소는 원광대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PRIME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2016년부터 익산학 심포지엄을 개최해 2018년 봄까지 총 4회에 걸쳐 연구 활동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익산학 강좌를 개설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익산학 강좌는 정규교과로 편성돼 익산의 역사와 문화 건축과 도

시, 산업과 경제, 예술과 인물, 지방정체와 시민사회 등 총 14개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여기에 익산의 역사문화현장을 답사하는 현장답사와 익산학의 확산을 위한 큐레이팅 실습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교수들도 대학 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 최완규(고교 미술사학과), 이문형(마한백제연구소), 이다문(역사교육과), 문이화(인문대학), 안선호(건축학과), 이경찬(도시공학과), 박태건(융합교육대학), 원도연(디지털콘텐츠), 임택대(시의원)이 각각 강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익산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강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온라인 강좌로도 제작할 계획을 갖

고 있다. 익산학연구소의 임승배 교수는 "익산학 강좌를 통해 국내 학생들에게는 익산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타 지역 학생들에게는 익산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익산학 강좌를 초기부터 기획한 이숙향 교수(영어영문학과)는 "이 강좌가 단순하게 대학의 교과로 끝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원광대와 지역사회가 좀 더 깊이 있게 교류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첫 번째 강의는 27일 인문대학에서 열리며 이숙향 교수(영어영문학과)의 '익산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학연구소(063-850-61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의회 의장단, 시 재난상황실 방문

군산시의회의장(의장 김경구) 의장단이 우리지역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재난상황실방문을 방문했다.

지난 23일 오후 9시경 시의회의 의장단은 관계자로부터 '솔릭' 태풍진로 예상 경로와 피해추출 규모 및 현재 강우량 및 예상 강우량,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취약 지역에 대한 대비책,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등 태풍 복상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비상 근무자들과 재난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의장단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진로예상 경로 등을 잘

파악해 해안가 선박, 가로수는 물론 외곽지역과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비와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장은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고 강조하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소관 분야별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솔릭 태풍으로 인해 수해를 입은 현장은 물론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배수지 등을 미리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인화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민·관협력사업 추진

익산시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혜서, 공공위원장 나은정)는 지난 24일 인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맛있는 행복을 드려요라는 슬로건으로 밀반찬 지원 사업 협약을 개최했다.

이번 밀반찬 지원 사업예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이자 익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까리까리 반찬(대표 손수길)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10가구에 월 12월 말까지 20주간 지원한다.

밀반찬 지원 사업의 진행은 1주일에 한번씩 4찬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부녀회장,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가정방문해 지원할 예정이며 인부확인 및 생활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까리까리 반찬 손수길 대표는 "어르신들이 반찬이 없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영양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반찬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